

박나래·유병재 선봉 '스탠드업 코미디'가 뜬다

(개그맨이 홀로 마이크를 잡고 '만담'을 펼치는 코미디)

박나래 '농염주의보' 성 소재 파격 유병재 'B의 농담' 공연 완판 행진 KBS도 16일 '스탠드업' 본격 론칭 시청자들 새로운 코미디 갈증 해소

개그우먼 박나래와 방송자가 출신 유병재가 선봉장으로 나선 스탠드업 코미디 장르가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무대에서 콘트를 펼치는 공개 코미디에 익숙해진 대중은 개그맨이 홀로 마이크를 잡고 '만담'을 펼치는 스탠드업 코미디에 신선하다는 반응을 쏟아낸다. 일각에서는 한동안 침체된 개그 무대를 되살릴 기회라는 기대감도 드러내고 있다.

스탠드업 코미디에 대한 화제는 최근 박나래가 넷플릭스를 통해 '농염주의보'를 내놓으면서 커졌다. 박나래는 4월부터 성(姓)을 소재로 과감한 만담을 펼치며 '세련된 개그'라는 호평을 얻고 있다. '티켓 파워'도 남달랐다. 박나래는 녹화를 겸한 5월과 6월 서울 공연에 이어 7월 부산, 전주, 성남, 대구 공연에서 전석 티켓을 매진시켰다.

같은 방식을 먼저 무대에 올린 이는 유병재다. 지난해 유병재는 'B의 농담'을 넷플릭스에서 공개하며 '악플' '꼰대' 등 다양한 주제를 녹여냈다. 공연 티켓 역시 1분 만에 팔아치우기도 했다. 개그맨 정재형, 김경희 등도 6월 '코미디얼



박나래의 '농염주의보'(왼쪽)와 유병재의 'B의 농담'이 스탠드업 코미디 장르를 구축하며 침체된 개그 무대를 부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 | 넷플릭스·스포츠투데이DB

라이브쇼'를 선보였다. 이 같은 기세를 이어 KBS 2TV는 16일 스탠드업 코미디를 전면에 내세운 '스탠드업'을 첫 방송한다. 박나래와 박

미선, 장도연 등이 나서는 프로그램은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본격 스탠드업 코미디쇼'를 표방한다.

이처럼 스탠드업 코미디가 새로운 트렌드처럼 자리 잡아가는 상황은 '한국형 1인 코미디'의 부활 아니냐는 평가도 끌어낸다. 스탠드업 코미디쇼는 1980년대 김병조, 주병진, 자니윤 등이 시작했으나 정치 풍자나 지나친 선정성에 따른 논란 등으로 명맥이 끊겼다.

'농염주의보'와 tvN '코미디 빅리그'의 최영주 작가는 11일 "꼭 짜인 허구의 스토리보다 '진짜 이야기'에 주목하는 대중문화의 흐름과 맞닿은 결과"라고 인기 이유를 분석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형태는 낯설 수 있지만 캐릭터 연기, 소롱, 이야기 등이 모두 들어가 있어 금방 공감을 이룰 수 있다는 강점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시청자들이 1999년 KBS 2TV '개그 콘서트' 이후 20여년 동안 공개 콘서트 코미디에 익숙해진 탓에 '새로움'을 향한 욕구가 커진 것도 한몫했다. 최 작가는 "스탠드업 코미디는 개인의 경험담을 극화시켜 내놓기 때문에 일반 콘서트보다 이야기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동안 콘트 코미디에 편중됐던 무대의 흐름을 새롭게 다질 기회라는 전망이 자연스럽게 힘을 얻는다. 정 평론가는 "코미디가 다양한 장르로 뻗어가는 시도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4

블랙핑크, 美 '피플스 초이스' 3관왕



블랙핑크

그룹 블랙핑크가 11일(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샌타모니카 바커행거에서 열린 '피플스 초이스 어워드'(E! People's Choice Award)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 이날 블랙핑크는 '2019년 올해의 그룹', '올해의 뮤직비디오', '올해의 콘서트 투어' 등 3개 부문상을 받았다. 미국 진출 9개월 만의 성과다. 1975년부터 시작해 올해 45회째를 맞는 시상식은 영화·TV·음악을 아우르며 팬 투표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김호영, 동성 성추행 혐의에 '억울'



김호영

뮤지컬 배우 겸 방송인 김호영이 동성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한 온라인 매체는 김호영이 9월 자동차 안에서 남성 A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PLK엔터테인먼트는 "김호영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억울해하고 있다. 사실 관계는 경찰 조사에서 모두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영은 현재 tvN 드라마 '쌈니다 천리마마트'와 MBC '복면가왕'에 출연 중이다.

박지원 의원 "윤정희, 쾌유를 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알츠하이머 투병 중인 배우 윤정희의 쾌유를 기원했다. 박 의원은 11일 SNS를 통해 "깜짝 놀랐다"면서 "제 아내와 종교교 동기로 이문동에서 함께 통닭 먹던(사이)"라며 "(당시 문화관광부)장관실로 남편 백건우 씨와 찾아왔던 기억이 선명하게 난다"고 윤정희와 인연을 소개했다. 이어 "쾌유를 빈다"며 회복을 기원했다. 윤정희는 10년째 알츠하이머 투병 중이며 현재 프랑스 파리 근교 마을에서 요양 중이다. 소식이 알려진 뒤 많은 누리꾼이 SNS와 온라인 등을 통해 윤정희의 건강 회복을 빌고 있다.

'강제 전성기' 김응수, 화장품 모델로



김응수

13년 전 영화 '타짜' 속 대사로 '강제 전성기'를 맞은 배우 김응수가 화장품 모델이 됐다. 화장품 브랜드 셀퓨전씨 측은 11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그가 '타짜' 속 자신의 캐릭터인 광철의 모습을 재현한 광고 사진을 공개했다. 셀퓨전씨 측은 "수많은 작품 속 그의 카리스마뿐 아니라 유머러스한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것이다"고 밝혔다.

'블랙머니' 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론스타 사건' 지금도 국제소송 진행 영화 속 진실 추적...대리만족 쾌감



영화 '블랙머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당장 국민 혈세 5조4300억 원이 증발할 위기다. 영화 '블랙머니'가 그린 사건이자 현실이다.

14일 개봉하는 '블랙머니'(제작 질라라비)는 IMF 외환위기 이후인 2003년 미국 사모펀드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해 2011년 4조6000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매각한 '론스타 사건'이 모티프다. "처음엔 은행 인수합병쯤으로 인식했다"는 주연배우 이하늬의 말은 영화가 말하는 현실이 그만큼 뼈아프다는 것을 지적한다.

론스타는 2012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외환은행 매각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물어 46억79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 현재 투자자와 국가 간 국제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만일 정부가 패소할 경우 배상 금액은 5조4300억 원, 근로자 평균 임금으로 환산하면 140만 명이 받을 월급이자 대학생 20만 명의 4년 치 등록금에 해당한다.

영화가 고발한 '모피아' 즉 금융권과 결합한 경제관료의 부정부패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의 국제은행과 공공기관 고위 임원들이 거래처인 외국 투자은행과 외화채권 발행 계약을 맺

으면서 자녀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밝혀냈다. 한 푼의 달러에도 국가경제가 위태로웠던 때 일부가 이를 이용해 사익을 취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블랙머니'에는 이 같은 '모피아'의 민낯이 극적으로 담겨 더욱 공분을 자아낸다. 영화는 전직 국무총리, 금융감독원장 등 인사들이 은행 매각을 주도한 해외 사모펀드에 불법으로 자본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국가 경쟁력을 책임진다는 미명 아래 검은 속내를 감춘 이들을 "마피아와 다를 바 없는 모피아"라고 영화는 말한다.

이처럼 실제 사건을 주시한 '블랙머니'는 영화만의 카타르시스도 놓치지 않았다. 진실을 추적하는 열혈검사 역 조진웅이 그 몫을 맡는다. "검사에게 내 편, 네 편은 없다"는 그는 "죄가 있으면 누구라도 잡아야 한다"고 외치며 정의의 향배 돌진하는 모습으로 대리만족을 안긴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



신곡 '늦은 밤 너의 집 앞 골목길에서'를 통해 2007년 데뷔 이후 처음으로 각종 음원사이트에서 1위를 차지한 4인조 보컬그룹 노을. 사진제공 | 씨제스엔터테인먼트

노랫말의 힘...가을 차트 휩쓴 '노을'

신곡 '늦은 밤 너의 집 앞 골목길에서' 울림 있는 가사...아이유 신곡도 제쳐

4인조 보컬그룹 노을이 흥행 파위를 자랑하고 있다.

1년 만인 7일 내놓은 신곡이 음원 차트의 절대 강자로 폄하됐던 아이유의 신곡까지 제치고 정상에 올라 자리를 지키고 있다. 11일 현재 노을의 디지털 싱글 '늦은 밤 너의 집 앞 골목길에서'가 멜론, 지니, 벅스, 소리바다 등 각종 음원차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2007년 데뷔해 '붙잡고도', '아파도 아파도' '전부 너였다', '그리워 그리워', '청혼' 등을 통해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지만, 팬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차트와 일간 종합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건 데뷔 이후 처음이다.

노을이 아이유와 MC몽, 악동뮤지션, 태

연 등 '음원 강자'들을 제칠 수 있었던 것은 노랫말이 전하는 깊은 울림의 힘이 꼽힌다. '늦은 밤 너의 집 앞 골목길에서'는 아픈 이별의 과정에 놓인 많은 이들이 원 없이 슬퍼하며 후회 없이 아픔을 털어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노을의 호소력 짙은 보컬과 현실적인 가사가 더해져 "중독성 강한 노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의 예상치 못한 선전으로 12월 연말 콘서트도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해 소극장 공연으로 팬들과 소통한 이들은 올해에는 규모가 조금 더 큰 공연장에서 콘서트를 연다. 12월21일과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노을이 내린 밤'을 펼치고, 대구와 대전, 부산 등으로 이어나간다. 최근 20~30대에서 40대 팬들로까지 팬층을 넓힌 이들은 인터파크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판매량이 꾸준히 늘어나 비슷한 시기에 공연을 펼치는 김건도의 공연을 제쳤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안방극장까지 진출...대기만성 배우 장혜진

데뷔 21년 만에 '기생충'서 존재감 '사랑의 불시착' 본격 드라마 활동

배우 장혜진이 뒤늦은 주목 속에서 점차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올해 5월 영화 '기생충'으로 존재감을 알린 장혜진이 안방극장에서 그 기세를 이어

간다. 무명으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영화와 드라마에서 확실히 자리 잡으며 연기 인생 2막을 펼친다.

장혜진은 12월 방송하는 케이블채널 tvN 금토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통해 본격적인 드라마 활동에 나선다. 그에게는 공식적으로 첫 드라마인 셈이다. 앞서 올해 5월 종영한 KBS 2TV '닥터 프리즈너'



장혜진

와 최근 KBS 2TV 수목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 카메라 출연한 것이 전부 일 정도로 드라마와는 인연이 거의 없었다.

장혜진은 1998년 영화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면'을 통해 데뷔해 9년의 공백기를 보냈다. 이후 연극 '도화골음란소녀 청이' '십이야' 등과 영화 '밀양' '시' 등에 단역으로 참여했다. 자신의 분야에서 묵묵히 활동한 끝

에 데뷔 21년 만에 '기생충'의 주역으로 나섰다. 드라마의 비중 있는 조연 자리까지 꿰차는 성과를 안았다.

현빈·손예진 주연 '사랑의 불시착'에서 장혜진은 북한 고위급 군인의 아내이자 평양 최고급 백화점 사장 역이다. '기생충'에서 괴팍할 만큼 억척스러운 주부를 완벽하게 소화한 그가 이른바 북한의 '상위 1%'의 호화스러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